

“석유공사, 특정 해외업체 밀어주려나” 부산일보 기사 관련  
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□ 보도내용

- 보도매체 : 부산일보(15.10.27)
- 제목 : 석유공사 특정 해외업체 밀어주려나(권승혁 기자)
- 보도내용 : 하단 참조

동 보도내용에 대한 석유공사의 입장

“금번 보도사항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들이 보도되었으므로 상세히  
조사하여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예정입니다.”

□ 석유공사에서 해외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님.

- 원유부이 신규구매 관련 업체선정 등 하도급관련 일체사항은 도급 계약에  
따른 도급자(SK건설(주))의 과업이며, 공사는 개입하지 않았음.
- 다만, 공사에서는 하도급선정이 하도급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 
선정될 수 있도록 저가하도급 심사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할 따름.

□ 도급자인 SK건설(주)이 신규부이 입찰시 A사 주력상품인 브이유형  
(Turntable Type) 지정하였으며(국내업체 향의로 브이유형 확대), 종전 개·보수  
입찰에 참여한 국내 업체 배제하고 원유부이 제조능력이 있는 해외업체로  
참가자격 제한한 것은 사실이 아님.

- 신규부이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관련 제반사항은 도급자인 SK건설(주)의  
과업이며, 공사는 부이유형, 참가자격 제한 등에 대해 도급자에게 지시  
하거나 요청한 사실은 없음.

- 부이유형 관련 "Turntable Type"은 부이 제작업체(4개업체)에서 일반적으로  
적용되는 유형이며, 도급자인 SK건설(주)의 입찰방법 등에 따른 공사비  
증액은 없음.

□ 당초 기존 원유부이 개·보수에서 신규 구매로 전환하여 설계비 80억원 손실

- 설계 용역비는 울산 BUOY이설공사 관련 입출하시스템(육·해상 배관,  
부이설치, 부이호스 등) 전체공사를 위한 설계비용임.
- 또한, 설계용역시 부이보수에 대한 비용은 조사설계 용역과업에서 제외  
하고 공사자체로 수행.

※ 관련 보도내용 요약

- 석유공사에서 원유부이 건설사업 입찰에서 특정 해외업체를 밀어  
주는 의혹 제기
- 도급자인 SK건설(주)이 신규부이 입찰시 A사 주력상품인 브이유형  
(Turntable Type) 지정하였으며(국내업체 향의로 브이유형 확대),  
종전 개·보수 입찰에 참여한 국내 업체 배제하고 원유부이 제조  
능력이 있는 해외업체로 참가자격 제한
- 당초 기존 원유부이 개·보수에서 신규 구매로 전환하여 설계비  
80억 손실이 예상